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

한경석* · 박성식*

Abstract

A Bibliographical Research of The DongyiSooseBowon Gabobon

Han Kyung-Suk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Background and Purpose

『DongyiSooseBowon』 is the book that was mixed 『GaboBon』 and 『KyungjaBon』 which was written by DongMu. But hardly any clause or text of the GaboBon excepting 『DongyiSooseBowon』 has been described.

At the year of 2000,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cquired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which is seen as a written copy of 『GaboBon』.

According to Lee Sung-Su who is the great-grandson of DongMu's older brother,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was worked by Lee Jin-Yoon who is the grandson of DongMu's older brother, and it was copied by Han Min-Gab and now is owned by Lee Sung-Su who is son of Lee Jin-Yoon.

2. Methods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of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through the study to focus on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

3. Result and Conclusion

- 1) It is reasonable that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had copied to the original 『DongyiSooseBowon GaboGubon』 which was written by DongMu.
- 2) We can find the character of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as follows.
 - (1) It has the table of contents, the definition of the number of the texts, and the article number of each texts.
 - (2) 『KyungJaBon』 and 『SinchukBon』 has different number of the texts about 『The general remarks on the Soyangin』.
 - (3) It is different with original 『GaboBon』 because of the extracting marks of the text.
 - (4) It is supposed that it has the parts which was additionally or wrongly amended by someone.
- 3) We can consider that the character of original 『GaboBon』 which was written by DongMu from 『HamsanSachon DongyiSooseBowon GaboGubon』 as follows.
 - (1) 『The Discourse on Nature and Order』 ~ 『The Discourse on the Four Principles』 is original articles of 『GaboBon』.
 - (2) The head title of 『The Discourse on the Origin of Oriental Medicine』 was not in 『GaboBon』.
 - (3) It is not clear whether 『The Discourse on the General Health Maintenance』 and 『The Discourse on Identifying Four Constitutions』 is original texts or amended texts of 『GaboBon』. So it is required more study about it.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한경석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31-710-3723 E-mail)hanks@dongguk.edu

I. 緒論

『東醫壽世保元』은 1893年 7月 13일부터 東武가 58歲인 1894年 4月 13일까지 漢南山中에서 著述(甲午本)한 후 東武가 卒한 1900年(64歲)까지 改抄(庚子本)하였다.

1901年 그의 門人들에 의해서 新本(庚子本)과 舊本(甲午本)을 모아 咸興 栗洞契(金永寬, 韓稷淵, 宋賢秀, 韓昌淵, 崔謙鏞, 魏俊赫, 李燮垣)에서 四卷 二冊의 木活字本으로 된 東醫壽世保元 初版本(辛丑本)이 出版된 後 1941年 七版本까지 刊行되었으나,¹⁾ 甲午本과 庚子本에 대한 資料는 기술된 바가 없다.

『東醫壽世保元』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중에서 保命之主²⁾와 甲午本の 篇名³⁾ 등이 일부 전해내려 오고 있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0年 四象體質醫學會의 李濟馬 100周年 追慕事業 때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⁴⁾를 통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抄錄한 것으로 추정되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란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東醫壽世保元 研究에 대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東武의 從曾孫이면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所藏者인 李聖洙의 證언에 의하면 李鎭胤(東武의 從孫)이 韓敏甲을 시켜 東武의 두루마리 글과 東醫壽世保元 活字本을 比較하여 抄錄한 것이

바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라 하였다.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筆寫本으로 되어 있고 條文引用表示를 하여 簡략한 形態로 되어 있기 때문에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原形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1년에 四象體質醫學會에서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⁵⁾을 發行하게 되었다.

現在까지 四象醫學은 多方面에 걸쳐 많이 研究가 進行되고 있지만, 四象醫學 形成過程에 관계된 文獻에 대한 研究는 朴⁶⁾의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李⁷⁾의 “東醫壽世保元 四象 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李⁸⁾의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文獻的 考察”, 玉⁹⁾의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의 比較를 통한 四象 方劑의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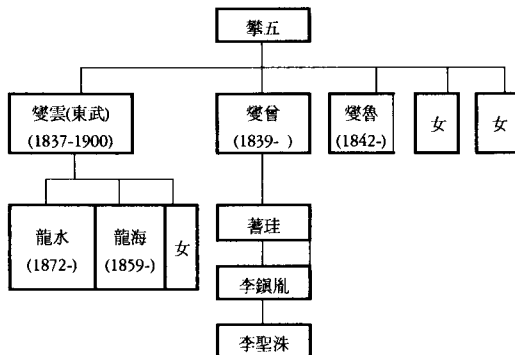
이에 본 著者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書誌學的 研究를 한 結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本 研究는 東武의 從孫인 李鎭胤의 主導로 1940年 韓敏甲이 抄錄하고,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가 現在 所藏하고 있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對象으로 하여 書誌學的 特徵을 살펴보았다.

먼저 甲午抄錄本의 特徵중에 하나인 條文引用表示, 目次, 條文數에 대해 살펴보고, 筆寫者의 필사上 誤謬로 추정되는 部分을 살펴보았다.

- 1)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 34
- 2) 上揭書 : 123
- 3)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四象醫學會誌, 1994 ; 6(1) : 81-87.
- 4) 朴性植,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66 ; 8(1) : 17.



- 5)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 6)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前揭書 : 81-87.
- 7)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書誌學的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1) : 63-77.
- 8) 李在媛, 宋一炳,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文獻的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2) : 75-94.
- 9) 옥윤영, 김경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의 比較를 통한 四象 方劑의 變遷 科程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 12(2) : 43-55.

그리고 甲午抄錄本이 가지는 特徵을 알아본 후에 甲午本과 庚子本의 復元時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2. 本 研究에서 사용한 版本의 名稱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정하였다.

- 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甲午抄錄本’이라 칭하였다.
- 2) 現在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甲午年에 著述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
- 3) 現在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庚子年까지 改抄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庚子本’이라 칭하였다.
- 4) 活字化된 1901年(辛丑年) 初版本 東醫壽世保元¹⁰⁾을 ‘辛丑本’이라 칭하였다.

Ⅲ. 本 論

1. 甲午抄錄本의 原著者에 관한 研究

甲午抄錄本은 1940年 東武의 從孫인 李鎭胤이 韓敏甲을 시켜 抄錄한 글이며, 이는 당시에 두루마리 글과 活字化된 『東醫壽世保元』을 比較하여 적게 한 것이다.¹¹⁾

甲午抄錄本이 제작되게끔 주도하였던 李鎭胤은 洪淳用 등과 保元契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¹²⁾

甲午抄錄本은 대상으로 한 原本의 실제 著者가 東武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李聖洙의 證言을 들어보거나 全般的인 條文의 構成과 內容을 辛丑本과 比較해 보면 甲午抄錄本은 東武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原形을 보면서 抄錄했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甲午抄錄本의 원래 著者는 東武 李濟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甲午抄錄本 筆寫者 韓敏甲에 대한 研究

筆寫者인 韓敏甲은 그간 四象醫學系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淸州韓氏 族譜를 중심으로 수소문하던 중 韓敏甲의 둘째 子인 韓治文이 강원도 원주시 생존

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의 證言을 토대로 筆寫者인 韓敏甲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내었다.

韓敏甲은 1899年 1月 12日 함경남도 정평¹³⁾에서 태어나서 대략 1940年까지 居住하였다. 슬하에 2男을 두었는데 첫째가 治勳(1919年生)이고, 둘째가 治文(1927年生)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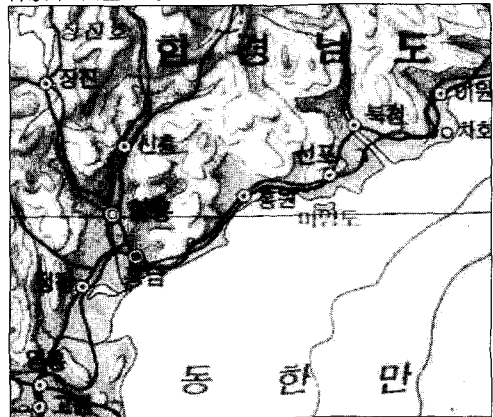
그는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차분하며 화를 별로 내지 않으며, 서재에는 책이 산더미같이 있었고, 사랑채는 항상 文人들로 붐볐으며, 약주는 전혀 입에도 대지 않았고, 마당에 벼가 비에 젖어도 집에서는 항상 글만 읽는 선비였다고 하였다.

先親께서 韓藥을 處方한다든지 刺針하는 것을 본 적은 없으나 누가 물으면 “韓藥房에 가서 이런 약을 조제해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었고, 서재에서 東醫寶鑑 등의 醫學書籍도 있었다고 하였다. 주로 함흥쪽으로 외출을 많이 나갔으나 누구와 교류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며, 李鎭胤과의 관계, 東武 李濟馬와의 관계 등은 특별히 기억하는 바가 없었다.

甲午抄錄本은 1940年 韓敏甲이 42歲에 筆寫한 것으로 韓治文이 14歲이나 甲午抄錄本 작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해방되던 다음해인 1946년에 월남하여 대전의 계룡산 근처에 정착하여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가끔 대전 익문사에서 활판의 글을 썼다고 하였다. 월남시 많은 책들을 가지고 내려왔으나 도중에 모

13) 韓敏甲 出生地 및 主 居住地인 정평의 位置



14) 淸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淸州韓氏大同族譜 禮賓尹公篇下. 回想社. 1993. : 七篇431

10)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11) 甲午抄錄本의 所藏者인 李聖洙의 진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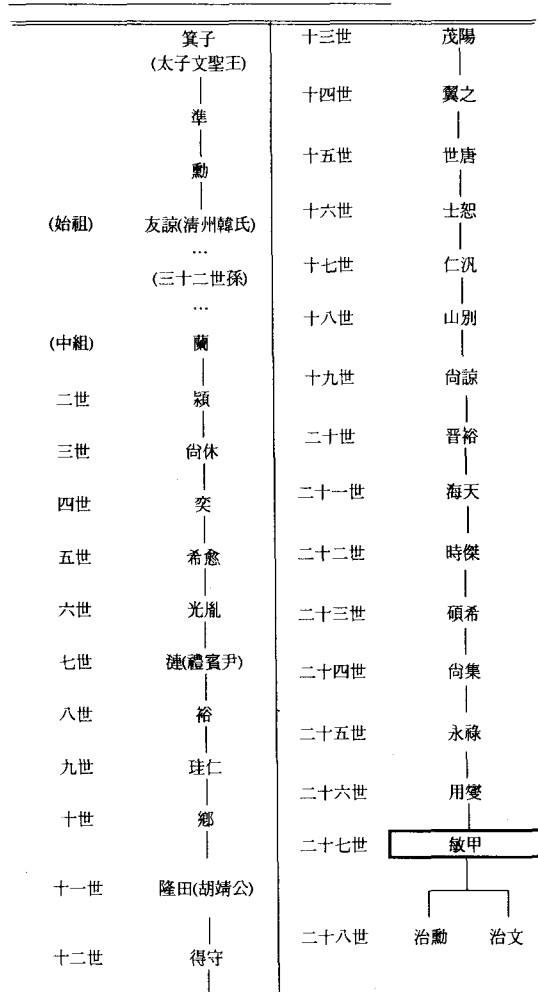
12) 四象體質醫學會誌. 四象體質醫學會沿革. 2000 ; 12(2) : i.

두 분실하였으며, 現在는 家系普만이 韓敏甲의 親筆으로 남아 있고 韓治文이 所藏하고 있다.

그리고 52세가 되던 1950년 1월 24일 대전에서 병환으로 사망하셨다.

筆者는 韓治文이 所藏하고 있는 家系普의 筆體를 확인한 결과 甲午抄錄本의 筆體와 同一하여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2)

그림 3은 대략 1940년경(40代 前後)의 韓敏甲으로 추정됨)에 찍은 사진으로 가운데 앞줄 오른쪽에 글을 쓰고 계신 분이 韓敏甲이며,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둘째 아들인 韓治文이다.



敏甲 1899年1月25日生 1950年1月24日卒 墓 楊平郡 楊東面 金旺里山 149番地 金村壬坐有表石
全州李古粉父植坤 1898年12月13日生 1966年8月12日卒 墓公墓前壬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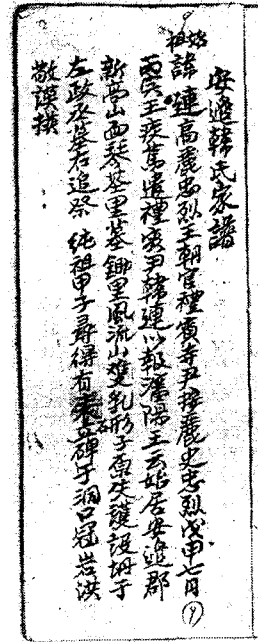


그림 1. 韓敏甲 親筆 家系普 첫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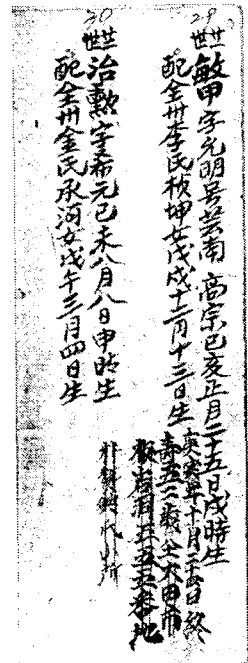


그림 2. 韓敏甲 親筆 家系普 敏甲面

표 1. 甲午抄錄本の 條文引用表示와 各 篇別 頻度數

條文引用表示 種類 篇名	甲午本 條文數	庚子本 條文數	抄錄本 條文數	條文引用表示 없음	出 新 本	下 ○ 條 出 新 本	○ 條 並 出 新 本	以 下 出 新 本	下 新 本 加 入	下 ○ 條 出 新 本 裏 病 論	無 新 本 出 印 本	出 新 本 無 印 本	出 新 本 太 陰 人 裏 病 論
卷之一	97	97	0	0	[1]								
性命論	37	37											
四端論	26	26											
擴充論	17	17											
臟腑論	17	17											
卷之二	221	218	95	60	5	20(85)	6(23)	2	1	1(3)			
醫源論	6	9	2			1(5)		1					
少陰表病論	60	52	33	20	2	9(36)		1	1				
裏病論	64	67	35	18	3	8(20)	6(23)						
泛論	27	24	3	0		2(24)				1(3)			
經驗藥方	42	42	0										
新定藥方	22	24	22	22							[1]		
卷之三	143	139	109	90{-8}	12{+5}	6(21)				1(2)			{+3}
少陽表病論	31	45	25	19{-3}	3{+3}	2(7)				1(2)			
裏病論	33	29	27	21{-5}	2{+2}	4(10)							{+3}
泛論	41	29	38	31	5	2(4)							
經驗藥方	19	19	0	[8]	2								
新定藥方	19	17	19	19	[1]								
卷之四	138{+5}	72	45	37{-1}	3{+1}	1(6)	1(2)			1(2)		1	
太陰表病論	23	11	16	10{-1}	3{+1}	1(6)	1(2)			1(2)			
裏病論	10	36	10	10									
經驗藥方	13		0								[1]		
新定藥方	17	24	17	17									
太陽外感病論	4		0								[1]		
內觸病論	11												
經驗藥方	12												
新定藥方	2												
廣濟說	25												
辨證論	26	1	2	1								1	
總 條文數	599{+5}	526	249	157{-9}	202{+6}	27(112)	7(25)	2	1	3(7)	[3]	1	{+3}

* : []안의 數는 각각의 條文에 표시된 것이 아니고, 篇名에 표시된 것이거나 藥方門의 條文다음에 있는 설명으로 條文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의 數는 ○의 數를 모두 합한 수이다. { }안의 수는 條文引用表示의 誤謬를 바로잡아 놓은 數이다. 예를 들어 “出新本”이 나오는 總 條文數는 ‘20[2]{+6}’의 경우는 먼저 甲午抄錄本에서 “出新本”이라 기술된 條文이 20개 있었고, 條文이 아닌 篇名 등에서 기술된 것이 2개 있었으며, 條文引用表示가 없는 條文중에서 마땅히 “出新本”을 붙여 誤謬를 교정해야 하는 條文이 6개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3. 韓敏甲의 사진(가운데에서 오른쪽 갓 쓰신 분)

3. 甲午抄錄本の 條文引用表示의 理解

甲午抄錄本에서 條文을 辛丑本과 일치하는 部分은 모두 적지 않고 첫 머리만 기술한 후 出新本 등의 條文引用表示를 해 놓았다. 따라서 條文復元을 해야만 甲午本 原形에 가까운 형태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條文引用表示의 理解가 先行이 되어야 한다.

甲午抄錄本の 目次에 의하면 甲午本の 條文은 604條文¹⁵⁾이지만 甲午抄錄本에는 條文引用表示 때문에 249條文만 기술되어 있다.

條文引用表示의 種類와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과 같고, 條文引用表示의 頻度를 各各의 篇에서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研究方法에서 版本名을 甲午本, 庚子本, 辛丑本으로 사용하였으나 條文引用表示에서는 旧本, 新本, 印本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상 “條文引用表示의 理解”에서만 甲午本을 旧本으로, 庚子本을 新本으로, 辛丑本을 印本으로 칭하였다.

1) 條文引用表示가 없는 경우

條文引用表示가 없는 경우는 旧本에서만 나오는 條文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旧本에 존재했으나 改抄되면서 완전히 없어진 경우이다.

둘째 改抄되면서 條文의 內容이 일부 수정된 경

우이다.

셋째 旧本과 印本에 동시에 있어서 條文引用表示를 하고 條文 內容을 모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誤謬로 인해서 條文引用表示를 하지 않고 內容을 그대로 적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로는 甲午抄錄本の 249條文중에서 157條文에 해당하며, 이중에서 9條文은 筆寫者의 誤謬로 인해서 條文引用表示가 누락되었다.

2) 出新本

出新本은 旧本에 존재하고 新本과 印本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여 條文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甲午抄錄本の 總 249條文중 26條文에서 出新本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야 하지만, 筆寫者의 誤謬로 인해 6條文에서는 “出新本”의 표현이 누락된 채 全 內容이 기록되어 있다.

3) 下某條出新本 或 下某條出新本裏病論

下某條出新本 或 下某條出新本裏病論은 몇 개의 條文이 旧本, 新本, 印本에서 똑같이 연속되어서 나올 때 이와 같이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下某條出新本가 27條文, 下某條出新本裏病論은 3條文에서 나타난다.

4) 某條並出新本

某條並出新本은 旧本, 新本과 印本에서 모두 同一하게 나타나는 條文들이나, 旧本에서 연속된 條文들이 新本에서는 연속되지 않거나 순서가 바뀌어 나타난 경우에 이와 같이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7條文에서 사용되었는데, 特徵의인 것이 少陰人 裏病論과 太陰人 表病論의 두 篇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5) 以下出新本

한 條文內에서 앞부분 條文은 旧本과 內容이 달라서 기록하였으나, 그 뒤 條文은 旧本과 新本의 內容이 동일하여 기록하지 않고 以下出新本이라 하고 기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로는 醫源論¹⁶⁾과 少陰人 表病論¹⁷⁾에서 한 개씩 기술되어 총 2條文에서 나타난다.

15) 甲午抄錄本の 目次에서는 599條文으로 되어 있으나 筆者가 바르게 수정한 條文數이다. “目次와 條文數의 比較”에서 다시 설명한다.

6) 無新本而 出印本

無新本而 出印本은 旧本에는 있고, 新本에는 없고, 印本에는 旧本과 동일한 條文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로는 甲午抄錄本의 少陰人 新定藥方¹⁶⁾, 太陰人 經驗藥方¹⁷⁾과 太陽人論²⁰⁾에서 각 1회씩해서 總 3회 사용되었다.

7) 出新本 無印本

“此書 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 稀罕之書 此書任古今之是非 決醫藥之樞軸 雖一字誤書 則爲作文者之大累 出新本 無印本”로 辨證論 末尾에 한 경우만 해당된다. 이 條文은 문맥의 흐름상 旧本에는 없었으나 新本에 추가되었고 印本에는 제자들이 누락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太陽人論以下는 東武가 卒함으로 인해 改抄하지 못했고 이 條文은 발문에 더 가까운 내용으로 改抄 순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加筆의 可能性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4. 甲午抄錄本의 目次와 條文數의 比較

甲午抄錄本의 主要한 特徵중에 하나가 目次와 條文數이다.

1901年 처음 出版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目次와 條文數가 기술되지 않으며, 실제 甲午本 原本에서 目次와 條文數가 기술되었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으나, 甲午本과 庚子本의 條文數를 함께 수록하고 있으면서, 條文數를 합치는 과정에서 誤謬 등을 생각해 볼 때 抄錄者가 첨가했을 可能性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甲午抄錄本의 目次 條文數와 著者가 직접 헤아린 辛丑本의 條文數를 비교하여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6)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論 卷之二 1條. 因許浚 東醫寶鑑所載 摘取張仲景傷寒論文及諸家所論 抄集一通 別附疑難 以爲太少陰陽四象人 傷寒時氣 表裡病論 而此篇中 張仲景所論 太陽病 以下出新本

17)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 13條.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病 下焦血證 卽少陰人 腎間陽氣 未能透表 而鬱蓄膀胱之證也 以下出新本

18) 甲午本 少陰人 新定藥方의 마지막 條文 ‘窮巷僻村 無新本 而出印本’

1) 卷之一의 條文數 比較

甲午抄錄本에서 卷之一에 대해서 條文數를 한번 밖에 적어 놓지 않아 甲午本에서만 있고 庚子本에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總 條文數를 헤아려 보면 卷之一이 庚子本에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甲午本, 庚子本과 辛丑本의 條文數가 같다. 즉 卷之一은 甲午本에서 完成되었고, 더 이상 改抄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 卷之二의 條文數 比較

庚子本과 辛丑本의 條文數가 일치한다. 卷之二는 庚子本으로 改抄되었고, 辛丑本의 卷之二는 改抄된 庚子本의 내용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卷之三의 條文數 比較

庚子本과 辛丑本의 少陽人 泛論을 제외하고는 條文數가 같다. 따라서 少陽人 泛論을 除外한 卷之三是 모두 庚子本의 내용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庚子本 少陽人 泛論이 29條文으로 기술되었으나 辛丑本을 실제로 헤아려 보면 23條文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原因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抄錄者인 韓敏甲의 誤謬일 可能性이 가장 높다. 抄錄者가 卷之四의 總 條文數를 잘못 헤아린 것처럼 少陽人 泛論의 條文數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는 실제 庚子本에서 29개의 條文이 있었으나 東武의 제자들이 初版本 등을 發行하면서 6條文을 누락시켰을 可能性이다. 庚子本 四象人辨證論의 한 條文을 누락시킨 것을 보면 이러한 可能性이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4) 卷之四의 條文數 比較

目次の 甲午本 卷之四의 각각 條文數를 헤아려 보면 138條文이 아니고 143條文이 된다. 辛丑本에서 확인할 수 있는 甲午本의 條文에 해당하는 太陰人 經驗藥方과 太陽人以下條文數들은 실제 甲午抄錄本 目次の 條文數와 一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條文數

17)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 13條.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病 下焦血證 卽少陰人 腎間陽氣 未能透表 而鬱蓄膀胱之證也 以下出新本

를 합한 사람의 誤謬일 可能性이 가장 높다.

庚子本の 條文數는 72條文으로 太陽人 表病論, 裏病論, 新定藥方과 辨證論의 한 條文을 合한 것이다.

庚子本 辨證論에 나오는 한 條文은 앞에서 “條文 引用表示의 理解”에서 가필의 可能性 등을 이미 설명하였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甲午本 辨證論의 條文數는 26條文이며 辛丑本の 辨證論 條文數를 실제로 헤아려 보면 25條文이다. 따라서 甲午本の “加一”의 에 해당하는 26번째 條文은 문맥상 辛丑本の “光緒甲午四月十三日 咸興李濟馬 畢書于漢南山中”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표2와 같이 甲午抄錄本 目次の “卷之四百三十八/七十一加一”과 甲午本 辨證論 條文數인 “辨證論 二十五加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辨證論 二十五/加一”을 오기했을 可能性도 추정할 수 있다. 즉 辨證論은 甲午本에서 25條文이며 庚子本에서는 1條文이고 辛丑本の 26번째 條文인 “光緒甲午四月十三日 咸興李濟馬 畢書于漢南山中”以下는 後人들이 添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總 條文數의 比較

目次에서 總 條文數를 599條文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卷之四의 條文數가 138條文인 경우의 總 條文數이다. 실제 卷之四의 條文數가 143條文이기에 604條文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표 2.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目次를 통한 條文數 比較

甲午抄錄本の 原文	甲午旧本	庚子新本	辛丑本
卷之一 九十七	97	97	97
性命論 三十七	37	37	37
四端論 二十六	26	26	26
擴充論 十七	17	17	17
臟腑論 十七	17	17	17
卷之二 二百二十一/二百十八	221	218	218
醫源論 六 /九	6	9	9
少陰表病論 六十 /五十二	60	52	52
裏病論 六十四/六十七	64	67	67
泛論 二十七/二十四	27	24	24
經驗藥方 二十三又十九	42	42	42
新定藥方 二十二/二十四	22	24	24
卷之三 百四十三/百三十九	143	139	133
少陽表病論 三十一/四十五	31	45	45
裏病論 三十三/二十九	33	29	29
泛論 四十一/二十九	41	29 ¹⁾	231 ¹⁾
經驗藥方 十又九	19	19	19
新正藥方 十九/十七	19	17	17
卷之四 百三十八/七十一加一	138 ²⁾	72	163
太陰表病論 二十三/十一	23	11	11
裏病論 十/三十六	10	36	36
經驗藥方 四又九	13		13
新定藥方 十七/二十四	17	24	24
太陽外感病論 四	4		4
內觸病論 十一	11		11
經驗藥方 十又二	12		12
新定藥方 二	2		2
廣濟說 二十五	25		25
辨證論 二十五加一	26	1	25
總 五百九十九條 甲午旧本 五百二十六條 庚子新本	599(604) ³⁾	526	611

細註 ※ 甲午旧本과 庚子新本の 條文數는 甲午抄錄本の 目次를 따랐고, 初版本의 條文數는 筆者가 직접 헤아렸다.

- 1) 庚子本 少陽人의 條文數가 29條文이나 辛丑本の 실제 條文數는 23條文이다.
- 2) 卷之四의 合은 138條文으로 기술되나 실제로 합해 보면 143條文이다.
- 3) 卷之四를 143條文으로 수정하면, 總 條文數는 604條文으로 해야한다.

5. 甲午抄錄本 筆瀉狀 誤謬들

甲午抄錄本 條文中에서 甲午本 筆瀉狀의 誤謬들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된다. 주로 條文引用表示의 誤謬가 많았으며, 문맥상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 目次の 誤謬

① 目次 卷之一의 誤謬

目次에서 卷之一 各篇의 條文數를 한번 더 적어야 하지만, 단지 한번만 표기하였다. 卷之二부터는 ‘甲午本條文數/庚子本條文數’의 형식으로 표기하였기에 庚子本에서 卷之一의 條文들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目次の 庚子本 總 條文數의 합을 보았을때는 庚子本의 卷之一이 存在했다고 볼 수 있으며, 卷之一의 條文數 全體가 同一하기에 한번만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庚子本에 卷之一의 條文이 없었을 수도 있다. 즉 甲午本과 辛丑本은 손으로 적은 筆瀉本이며, 卷之一의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면 庚子本에서는 “卷之一是 甲午本과 같다”는 내용의 條文引用表示를 했지 條文全體를 다시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條文數 역시 한번만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目次 卷之三의 誤謬

少陽人 泛論은 29條文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헤아려 보면 23條文이다. “目次와 條文數의 比較”에서 한번 언급하였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③ 目次 卷之四의 誤謬

甲午本 各篇의 條文數 합이 맞지 않다. 卷之四의 總합이 138條文이라고 되어 있으나 143條文으로 하는 것이 맞다.

④ 目次 總 條文數의 誤謬

卷之四의 條文數가 甲午抄錄本의 138條文이라고 했을 때 甲午本의 總 條文數는 599條文이 되지만 卷之四의 條文數를 143條文으로 수정하면 604條文으로 고쳐야 한다.

2) 卷之三의 誤謬

①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引用條文表示의 誤謬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 24條, 26條, 27條의 3條文²¹⁾은 辛丑本 9-40條, 9-20條, 9-21條에 그대로 나오

지만 條文引用表示가 없다. 따라서 이 3條文은 뒤에 “出新本”이란 條文引用表示를 해야 한다.

②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引用條文表示의 誤謬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6條, 17條, 18條의 3條文²²⁾은 辛丑本의 13-20條, 13-21條, 13-22條에 그대로 나오지만 條文引用表示가 없고 篇의 所屬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이 3條文은 뒤에 “出新本 太陰人 裏病論”이란 條文引用表示를 해야 한다.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9條, 24條의 2條文²³⁾은 辛丑本의 10-27條, 10-19條에 그대로 나오지만 條文引用表示가 없다. 따라서 이 3條文은 뒤에 “出新本”이란 條文引用表示를 해야 한다.

③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 引用條文表示의 誤謬

甲午本 少陽人 泛論의 27條, 28條의 2條文²⁴⁾은 辛丑本에서 11-12條와 11-11條로 條文順序와 位置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引用條文表示는 “二條出新本”이 아니고 “二條並出新本”으로 하는 것이 맞다.

④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九方 引用條文表示의 誤謬

甲午本 少陽人 新定藥方이 마지막 條文인 “已上 少陽人藥 諸種 不可炮灸炒煨用”은 辛丑本 少陽人 新定藥方에 “少陽人藥 諸種 不可炮灸炒煨用”으로 그대로 나오지만 條文引用표시가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뒤에 “出新本”이란 條文引用表示를 해야 한다.

21)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 24條. 傷寒 脈弦細 頭痛 發熱者 屬少陽 不可發汗 發汗則 譫語 26조. 李子建 傷寒十勸論曰 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煨藥 又曰 傷寒自利 當看陰陽證 不可例服 溫煨 及止瀉藥 27條. 朱震亨曰 傷寒陽證 身熱 脈數 煩渴引飲 大便秘利者 宜柴芩湯

22)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6條. 內經曰 二陽結 謂之消飲一洩二 死不治 註曰 二陽結 謂胃及大腸熱結也 17條. 扁鵲難經曰 消渴脈 當得緊實而數 反得沈瀉而微者死 18條. 張仲景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

23)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9條. 孫思邈 千金方書曰 消渴 宜慎者 有三 一飲酒 二房勞 三鹹食及麵 能慎此三者 雖不服藥 亦可自愈 24條. 消渴 須防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莖花葉 皆可服

24) 甲午本 少陽人 泛論 20條. 少陽人痢疾 ○ 痢疾之比結胸 二條出新本

3) 卷之四의 誤謬

① 太陰人 外感腦傾病論 引用條文表示의 誤謬

甲午本 太陰人 表病論의 10條~21條까지²⁵⁾는 辛丑本에서 太陰人 裏病論에서 13-1條~13-11條와 13-17條의 연속되지 않은 條文이다.

甲午本에서 제대로 條文引用表示가 되어 있는 11條를 제외하고 모두 “出新本裏病論”을 붙여야 한다.

② 新定 太陰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서 牛黃山藥元의 麥門冬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中에서 “牛黃山藥元 牛黃二分 山藥 遠志 各二錢 麥門冬 糊分作四丸 每一丸 溫水調下”이라 하여 麥門冬 뒤에 分量의 표시가 없는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글의 문맥상 分量이 빠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둘째 麥門冬 自體로 떡화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떡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方法이 있으나, 分量이 表示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 搗膏한 경우: 『東醫寶鑑』 四物坎離丸²⁶⁾의 熟地黃, 生地黃처럼 찼어서 膏를 만드는 方法이 있다.

나, 拌蒸한 경우: 『東醫寶鑑』 千金指迷丸²⁷⁾의 白茯苓처럼 같이 넣어서 찼서 만드는 方法이 있다.

다, 酒制(浸, 汁)하여 떡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했을 경우: 東醫寶鑑 神仙既濟丹²⁸⁾(虛勞通治藥)의 山藥, 山茱萸, 熟地黃, 麥門冬, 菟絲子 등의 成分이 풍부한 藥劑를 酒制하여 떡으로 變化를 시키는 方法이 있다.

셋째 麥門冬을 湯으로 끓여서 그 물을 丸만드는

데 사용했을 경우로 『東醫寶鑑』 三花五子丸²⁹⁾(眼花)나 石決明散³⁰⁾(外障)과 같이 丸이나 散劑를 麥門冬 끓인 물에 服用하는 方法이 있다.

넷째 이 藥方에 麥門冬이 없을 可能性이 있다. 『東醫四象新編』의 牛黃山藥元 다음 藥方이 麥門冬湯이고 그 첫 번째 藥物이 麥門冬이다.³¹⁾ 『東醫四象新編』의 연구가 좀 더 되어야 하겠지만, 『東醫四象新編』과 같은 東武의 藥方集이 存在 했다고 가정하고, 抄錄者가 이를 그대로 참고하였다 다고 하면, 『東醫四象新編』에서 牛黃山藥元의 다음 藥方에서 麥門冬을 筆瀉者의 誤謬로 牛黃山藥元에 넣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6. 甲午抄錄本의 特徵

甲午抄錄本은 부분적으로 加筆 또는 誤謬로 추정되는 部分이 적지 않게 발견되며 이러한 部分을 모두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다시 말해서 甲午抄錄本의 特徵으로 볼 수도 있다. 하나 주의할 것이 東武의 原形 甲午本과는 別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1) 目次의 存在

目次와 條文數의 比較에서도 자세히 설명했듯이 抄錄者가 첨가했을 可能性이 매우 높으나, 실제 甲午本 原本에서 目次가 존재했을 可能性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目次에서 기술한 篇名은 少陰人表病論 등

25) 甲午本 太陰人 外感腦傾病論 10條 內經曰 諸澁枯涸 乾勁皴揭 皆屬於燥 11條 朱肱曰 陽毒 下二條出新本 裏病論 13條 龔信曰 陽明病 目痛 ○ 三陽病 二條出 並新本 16條 靈樞曰 尺膚 下六條出新本

26) 許浚著. 東醫寶鑑. 南山堂. 1994 : 308. “四物坎離丸 : 熟地黃 酒浸 搗膏 三兩 生地黃 酒浸 搗膏 一兩五錢 當歸 酒炒 二兩 白芍藥 酒炒 一兩五錢 知母 黃柏 並 鹽酒炒 一兩 黃柏 知母 並鹽酒炒 二兩 側柏葉 並炒 一兩 梔子 並炒 一兩 連翹 六錢”

27) 上揭書. : 134. “千金指迷丸 : 半夏麴 二兩 白茯苓 虛人 乳汁拌蒸 瘦人 縮砂並酒浸 生地黃汁浸蒸 一兩 枳殼 醋炒 一兩 風化消 二兩五錢”

28) 上揭書. : 451. “神仙既濟丹 : 黃柏酒炒 四兩 山藥酒 蒸 牛膝酒洗 各三兩 人參 杜冲 薑汁炒 巴戟 五味子 白茯苓 枸杞子 酒洗 茴香 鹽水炒 肉蓯蓉 酒洗 山茱萸 酒蒸 遠志 甘草 水浸 去骨 石菖蒲 知母 酒炒 生地黃 酒炒 熟地黃 麥門冬 菟絲子 酒製 甘菊 酒洗 梔子炒 各二兩 陳皮去白 一兩 右爲末 蜜和蒸棗肉和 丸 梧子大 空心鹽湯 溫酒下 七九十九”

29) 上揭書 : 225. “三花五子丸 : 密蒙花 旋覆花 甘菊花 決明子 枸杞子 菟絲子 酒製 鼠粘子 地膚子 石決明 煨 甘草 各等分 右搗爲末蜜丸 梧子大 食後 麥門冬 湯 下五十九丸. 醫林”

30) 上揭書 : 221. “石決明散 : 石決明 草決明 各一兩 羌活 梔子 木賊 青箱子 赤芍藥 各五錢 大黃 荊芥 各 二錢半 右爲末 每二錢 麥門冬湯 調下 入門”

3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友文社. 1929 : (諸方)15.

吉 更 根	葛 麥 門 冬	○ 麥 門 冬 湯	牛 黃	遠 志	山 藥	○ 牛 黃 山 藥 元	五 味 子	黃 栗	○ 黃 栗 五 味 子 膏
		錢 三	分 二	錢 各 二			枚 三 十	一 一	
	及 表 熱 泄 瀉	治 傷 寒 半 表 裏			下 分 作 中 四 丸	治 不 溫 語 水		可 倍 三 又 加 倍	一 次 盡 服 再 服 ○

과 같이 本文중의 篇名을 간략화 하였다.

2) 性命論~臟腑論의 改抄

『東醫壽世保元』은 甲午本에서 庚子本으로 고쳐 지는데, 「醫源論」부터³²⁾ 또는 「性命論」부터³³⁾ 改抄 되었다고 하여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甲午抄錄本은 目次에서는 卷之一의 條文數를 甲午本과 庚子本에서 똑같이 기술하였고, 卷之一 本文에서도 庚子本과 甲午本の 條文이 같다는 “出新本”의 표시를 하였기에 甲午本에서 卷之一이 完成되고 그 以後로 改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醫源論의 篇名

目次에서는 「醫源論」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本文중에서 「醫源論」이라는 篇名이 나오지 않는다. 辛丑本の 醫史學的 내용은 보이지 않고 內經과 相關된 것이 主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醫源論」이란 篇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抄錄者가 누락시켰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4) 廣濟說의 存在有無

「廣濟說」의 存在有無에 대해서 辛丑本에서 “太陽人論以下三論 未有增刪”이라 하여 三論은 太陽人論, 廣濟說, 辨證論으로 廣濟說은 甲午本에 存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甲午抄錄本의 目次에서 甲午本の 「廣濟說」이 25條文이라 하였고, 본문에서 “太陽人論 以下 出印本 無新本”이라 기술한 것을 보면 廣濟說은 甲午本에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自醫源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而 其餘諸論 未有增刪”³⁴⁾라 하여 甲午本에서 廣濟說의 存在에 대해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洪³⁵⁾은 “廣

濟說은 『東醫壽世保元』을 편집할 때에 後篇에 첨부하였다”고 하여 廣濟說이 甲午本과 庚子本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5) 辨證論의 改抄有無

辛丑本에서 “太陽人論以下三論 未有增刪”라 하여 「辨證論」은 改抄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였다. 그러나 甲午抄錄本의 「辨證論」에는 2條文이 기술되며 모두 논란이 될만한 내용들이다.

첫 번째 條文³⁶⁾은 太少陰陽人의 分布에 관한 것으로, 草本卷³⁷⁾과 辛丑本³⁸⁾에서 유사한 내용이 기술된다. 그러나 甲午抄錄本 외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條文 다음에 “二. 太陽人 體形氣像 下二十四條出新本”이라는 조문이 나와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條文은 加筆의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條文³⁹⁾은 “條文引用表示의 理解”에서 가필의 可能性 등을 설명하였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辨證論」이라기보다 跋文일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6) 少陽人 泛論의 條文數

앞서 “目次와 條文數의 比較”에서 설명했듯이 甲午抄錄本 目次 少陽人 泛論에서 29條文이라 하였지만, 직접 辛丑本을 헤아려 보면 23條文이 되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抄錄者의 誤謬이거나 辛丑本 등에서 6條文이 누락되었을 두 가지 可能性이 있다.

36) 甲午本 辨證論 :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北道山谷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少陽人 五千人也 太陰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以南中原野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少陽太陰人 各四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 亦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37)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草藁. 鼎談. 1999 : 55. ‘太少陰陽稟賦之人, 以今時一縣方萬人數斟酌之則, 太陰人五千人也, 少陽人三千人,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不過四五人已’

38) 辛丑本 辨證論 1條.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五千人也 少陽人三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 絕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39) 甲午本 辨證論 : ○ 此書 雖出今人之手 實是千古醫家 稀罕之書 此書 任古今之是非 決醫藥之樞軸 雖一字誤書 則爲作文者之大累 出新本 無印本

3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麗江出版社. 1992 : 315. ‘甲午畢書後 乙未下鄉 至于庚子 因本改抄 自醫源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而 其餘諸論 未有增刪 故 並依新舊本刊行’

3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서울. 大星文化社. 1998 : (卷之四)34. ‘嗚呼 公甲午畢書後 乙未下鄉 至于庚子 因本改抄 自性命論 至太陰人諸論 各有增刪而 太陽人論以下三論 未有增刪 故 今以甲午舊本開刊’

34)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麗江出版社. 1992 : 315.

35)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95 : 400.

7) 補遺方

補遺方이라하여 桂附薑陳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豬苓白虎湯, 葛根萊菔子湯, 瀉心湯, 獨參湯, 千金膏의 8藥方이 甲午本の 것이라 알려져 왔다.⁴⁰⁾

이를 甲午抄錄本の 藥方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藥物構成이 동일한 藥方

桂附薑陳理中湯, 獨參官桂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의 3藥方은 甲午抄錄本の 新定方과 일치한다.

② 藥物構成이 다른 藥方

補遺方 豬苓白虎湯은 甲午本 豬苓白虎湯과 藥方構成이 많이 다르며, 오히려 甲午本 陽毒白虎湯과 類似하다.(표3)

獨參附子理中湯은 甲午本에서 獨參理中湯의 變方으로 官桂가 없는 藥方이나 補遺方에서는 獨參官桂理中湯의 變方으로 官桂가 있는 藥方이다.(표4)

표 3. 豬苓白虎湯의 比較

	豬苓白虎湯		陽毒白虎湯
	補遺方	甲午本	甲午本
石膏	4	4	4
生地黃	4	4	4
知母		2	
黃柏		1	
澤瀉		1	
豬苓		1	
赤茯苓		1	
荊芥	1		1
牛蒡子	1		1
羌活	1		1
獨活	0.5		0.5
玄蔘	0.5		0.5
山梔子	0.5		0.5
忍冬藤	0.5		0.5
薄荷	0.5		0.5
柴胡			0.5

<단위 錢>

표 4. 獨參附子理中湯의 比較

	甲午本	補遺方
人蔘	5	5
白朮	2	2
乾薑	2	2
白芍藥	2	2
陳皮	1	1
炙甘草	1	1
大棗	2	2
附子	2	2
官桂		2

<단위 錢, 大棗 단위는 枚>

③ 甲午抄錄本에 藥物構成이 없는 藥方

瀉心湯, 獨參湯, 葛根蘿蔔子湯의 3藥方은 甲午抄錄本에 藥物構成이 없다.

千金膏는 藥物構成뿐만 아니라 病證論中の 用例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7. 甲午本과 庚子本の 復元에 관한 研究

1) 甲午本の 條文復元과 復元時의 문제점들

甲午抄錄本을 기준으로 하여 卷之一, 少陰人 經驗藥方, 少陽人 經驗藥方, 太陰人 經驗藥方, 太陽人論, 廣濟說은 甲午本の 내용이 그대로 庚子本에 수록되고, 나머지 부분은 條文引用表示된 내용을 辛丑本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甲午本을 復元하면 쉽게 復元本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復元時 問題가 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目次の 有無

甲午抄錄本の 目次와 條文數가 기술되고 本文의 篇名과는 다른 간략화된 篇名이 기술된다. 이는 抄錄者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甲午抄錄本以前에 目次와 관련된 原本甲午本 以外的 資料가 있었을 가능성과 甲午本에 실제로 目次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② 條文番號

甲午抄錄本에는 條文番號가 모두 붙어 있어 條文數를 확인하고 찾기에 매우 편리하다. 辛丑本에 條

40) 李濟馬著, 朴奭彦譯,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 386.

文番號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筆者가 임의로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醫源論」의名稱

甲午抄錄本の 目次에서는 「醫源論」이라 하였지만本文中에서는 篇名이 없다. 따라서 甲午本에 「醫源論」이라는 篇名이 存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存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廣濟說

甲午本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⑤ 辨證論

甲午抄錄本 「辨證論」의 두 條文에 대해서 甲午抄錄本이 特徵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가능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2) 庚子本の 條文復元와 復元時의 문제점들

甲午抄錄本の 目次에서 보듯이 庚子本の 條文數는 辛丑本과 一致한다. 즉 辛丑本은 庚子本을 위주로 하여 빠진 부분을 甲午本에서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庚子本을 復元를 하더라도 甲午本復元과 같은 意義를 가지기 힘들다.

庚子本の 復元시에도 甲午本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의 卷之一

甲午抄錄本の 誤謬에서 기술하였듯이 卷之一이 庚子本에서 어떤 형태였는가에 대한 문제다. 굳이 같은 條文을 힘들게 똑같이 반복해서 적었을 이유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甲午抄錄本の “卷之一 出新本”과 유사한 條文引用表示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② 甲午本에서 改抄되지 않은 條文들

卷之一의 의문점과 유사하다. 즉 甲午本에 있는 條文에 대해서 힘들게 다시 적었을 가능성은 떨어지며 甲午抄錄本과 같은 條文引用表示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③ 經驗藥方

甲午抄錄本에서 庚子本 目次와 經驗藥方에서 보면 少陰人과 少陽人 經驗藥方은 존재하지만 太陰人 經驗藥方은 庚子本에 없다.

少陰人과 少陽人의 經驗藥方은 甲午抄錄本과 같은

條文引用表示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太陰人 經驗藥方은 改抄된 순서상 庚子本에 存在했어야 한다.⁴¹⁾

甲午本의 條文임에도 불구하고 補中益氣湯 등의 今考更定에서 설명한 藥物은 辛丑本의 思考가 보인다.

④ 少陽人 泛論의 條文

甲午抄錄本 目次の 條文數와 실제 條文數가 틀리다.

⑤ 辨證論

庚子本 辨證論은 目次에서 기술된 1條文만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이것이 辨證論의 條文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N. 總括 및 考察

『東醫壽世保元』은 1901년에 처음 活字本으로 開刊되었다. 그리고 甲午抄錄本은 1940年 韓敏甲이 抄錄하였다.

甲午抄錄本에는 辛丑本病證論의 原形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고 藥方에서도 東武의 고유 藥方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확인 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甲午抄錄本은 東武의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原形으로 하여 抄錄한 것이라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甲午抄錄本이 나오기 前까지 甲午本과 관련된 資料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東醫四象新編』의 經驗方 등에서 多數의 甲午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東醫四象新編』은 東武가 卒한지 약 30年이 지난 후인 1929년에 출판된 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著者인 元持常의 居住地가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내사리⁴²⁾이고, 東武와 東武의 子인 龍海가 居住했던 곳이 咸興인 것을 보았을 때, 元持常이 甲午本의 原本을 보고 藥方을 抄錄했다기 보다는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甲午本의 筆寫本 또는 東武의 藥方集에서 인용했을 가능성도

41) 庚子本の 太陰人論 順序가 太陰人 表病論, 裏病論, 經驗藥方, 新定藥方이다. 目次の 條文을 보면 太陰人 表病論, 裏病論, 新定藥方은 있지만, 中間의 經驗藥方이 누락되었다.

42) 尹報鉉. 東醫四象新編의 著者인 元持常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 12(2) : 9.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東醫四象新編』이 출판된지 10年後에 쓰여진 甲午抄錄本 역시 甲午本 原本을 보지 않고 다른 筆寫本 등을 인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

甲午抄錄本은 本論에서 部分的인 加筆의 可能性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甲午抄錄本이 과연 韓敏甲이 甲午本 原本을 보고 抄錄했는지, 다른 甲午本 抄錄本을 보고 抄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東武의 初期 생각이라 생각되는 表裏之表裏의 構圖, 保命之主, 甲午本 新定方 등 甲午抄錄本이 四象醫學의 初期資料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甲午抄錄本의 전반적인 내용은 東武의 著作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으나 부분적인 加筆 또는 矛盾되는 部分으로 보이는 곳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甲午抄錄本의 特徵이 되기도 한다.

甲午抄錄本이 실제 甲午本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는 原本의 出現 後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甲午抄錄本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은 甲午本에서 完成되었다.

甲午本에서 庚子本으로 고쳐지면서 「性命論」부터 또는 「醫源論」부터 改抄되었다는 2가지 相反된 見解가 제시되지만, 甲午抄錄本에서는 目次와 本文중의 “卷之一 出新本”을 보았을 때 甲午本에서 卷之一이 完成되고 그 以後로 改抄되지 않았고 볼 수 있어 본 研究의 補助 教材로 잡은 辛丑本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目次와 條文數가 記載되었다.

甲午抄錄本에서 目次와 條文數가 있는데, (庚子本) 「少陽人 泛論」의 條文數를 29개라고 하여 실제 辛丑本의 23條文과는 다르게 기술한다. 따라서 條文數를 헤아린 인물의 誤謬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庚子本에서 29條文이 있었고 辛丑本을 發行하면서 그의 門人들이 6條文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甲午抄錄本 目次에서 甲午本 卷之四의 條文數의 合이 틀리게 기술되었는데 이는 抄錄者 등의 誤謬로 추정된다.

目次에서 사용한 少陰人表病論, 少陰人裏病論, 經

驗藥方과 新定藥方이란 용어는 실제 甲午本 篇名이라기보다는 편의상 만든 용어로 보인다.

여러 가지 경향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甲午本 原本에서 目次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原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셋째, 「醫源論」에 해당하는 篇名이 없었다.

甲午本에서 「醫源論」에 해당하는 篇名이 없고,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東武가 만든 篇名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抄錄者가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條文引用表示를 하였다.

甲午抄錄本은 甲午本의 내용중에 辛丑本과 일치하는 條文에 대해서는 條文引用表示를 해 놓았고, 다수의 條文引用表示의 누락된 것을 이미 본론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등에서 같은 條文을 확인가능하기에 힘들게 다시 적는 수고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甲午本의 많은 條文들이 고쳐지지 않고 庚子本에서 그대로 사용되었기에 똑같은 條文을 다시 적는 수고를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庚子本 역시 甲午抄錄本처럼 條文引用表示가 많이 된 版本이지 않았을 까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다섯째, 條文番號가 있었다.

甲午抄錄本의 각 條文앞에는 番號가 붙어 있어 目次의 條文數와 비교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抄錄者가 넣은 것으로 추정되며, 비록 甲午本의 내용이지만 최초로 『東醫壽世保元』에 條文番號를 붙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섯째, 「廣濟說」의 甲午本에서 存在有無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甲午抄錄本의 目次條文數 등을 볼 때 『東醫壽世保元』에서 「廣濟說」은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洪淳用 등에 의해 甲午本에서 「廣濟說」의 存在가 부인되기도 하였고, 甲午抄錄本의 本文상에서도 廣濟說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廣濟說」의 存在有無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甲午本 原本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일곱째, 「四象人 辨證論」의 改抄有無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甲午抄錄本 四象人 辨證論의 두 條文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다.

四象人의 分布와 관련된 첫 번째 條文이 만약 甲午本의 條文이라고 하면 그 뒤에 辛丑本의 두 번째 條文을 기술하고 條文引用表示를 했어야 하였으나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存在하지 않기에 加筆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條文이다.

두 번째 條文은 『詳校懸吐東醫壽世保元』⁴³⁾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庚子本의 條文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과연 「四象人 辨證論」의 내용인지 아니면 가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로 남는다.

V. 結 論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를 중심으로 書誌學의 特徵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東武의 著作인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原形을 抄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 1) 目次, 條文數, 條文番號가 있다.
 - 2) 庚子本 「少陽人 泛論」의 條文數가 실제 辛丑本의 條文數와 다르다.
 - 3) 條文引用表示를 하여 甲午本 原形을 모두 실지 않았다.
 - 4) 條文을 抄錄하는 過程에 多數의 加筆과 矛盾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3.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根據로 東武의 甲午本 原形은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 1)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은 甲午本에서 完成되었다.
 - 2) 「醫源論」에 해당하는 篇名이 存在하지 않는다.
 - 3) 「廣濟說」은 存在유무와 「四象人 辨證論」의 改抄

43)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 96.

有無는 좀 더 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麗江出版社. 1994.
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2000.
4.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5. 李濟馬著.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信一文化社. 1972.
6. 李濟馬著, 洪淳用, 李乙浩譯述.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95.
7. 李濟馬著, 朴爽彥譯. 東醫四象大典. 醫道韓國社. 1977.
8. 全國韓醫科大學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集文堂. 1997.
9. 李濟馬著, 梁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1999.
10. 李濟馬著, 金達來編譯. 東醫壽世保元草藁. 鼎談. 1999.
1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友文社. 1929.
12.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海東出版社. 1999.
13.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8.
14. 朴性植.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3 ; 5(1) : 1-34.
15. 朴性植.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6 ; 8(1) : 17-32.
16.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1994 ; 6(1) : 81-87.
17.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書誌學의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1) : 63-77.
18. 李在媛, 宋一炳.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文獻의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 11(2) : 75-94.
19. 尹報鉉, 朴性植. 東醫四象新編의 著者인 元持常의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 12(2) : 9-16.

20. 옥윤영, 김경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草本卷의 比較를 통한 四象 方劑의 變遷 科程에 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 12(2) : 43-55.
21. 淸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淸酒韓氏大同族譜禮賓尹公卷上中下. 回想社. 1993.